

민물대 그림책 1

강아지똥

글·권정생 그림·정승각



정관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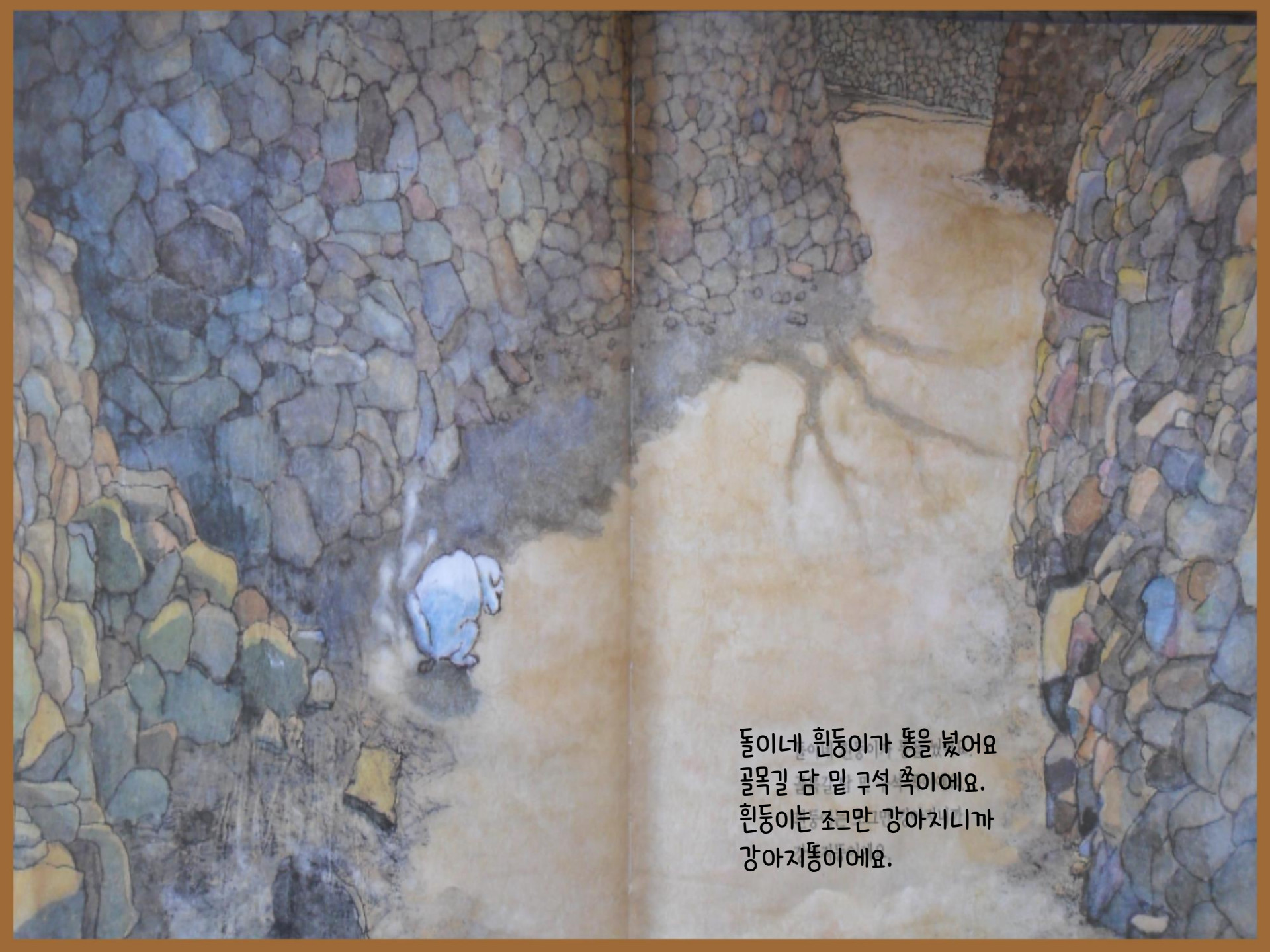
초등 2-1
국어교과서
수록 도서

강아지똥

글 · 권정생 그림 · 정승각



길벗어린이



돌이네 흰둥이가 똥을 뉘어요
골목길 담 밑 구석 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치니까
강아지똥이에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보더니 강아지똥 곁에
내려앉아 콧코 찌면서 똥 곁에 내려앉아 콧코 찌면서
"똥! 똥! 에그, 더러워..." "에그,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뭐야!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강아지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바로 저 먼치 소달구지바퀴자국에서 뒹굴고 있던 흙덩이가 결눈질로
 흘끔 쳐다보고
 빙긋 웃었어요.

"뭣 땀에 웃니, 넌?"

강아지똥이 화가 나서 대들듯이 물었어요.

"똥을 똥이라 않고 그럼 뭐라 부르니?"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강아지똥은 그만

"으앙!" 울음을 터트려 버렸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강아지똥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지마."

흙덩이가 정답게 강아지똥을 달래었어요.

"..." 덩이가 정답게 강아지똥을 달래었어요.

"정말은 내가 너보다 더 흥측하고

더러울지 몰라..." 더 흥측하고 더러울지 몰라....."

흙덩이가 얘기를 시작하자,

강아지똥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였어요.



"...본래 나는 저어쪽 산비탈 밭에서
곡식도 가꾸고 채소도 키웠지.
여름엔 보랏빛 하얀빛 감자꽃도 피우고..."
"그런데 왜 여기 와서 텅굴고 있니?"
강아지똥이 물었어요.

강아지똥이 물었어요.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지난 여름, 비가 내리지 않고 가
뭄이 무척 심했지.

그때 내가 키우던 아기고추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해버렸단다."

"어머나! 가여워라."

"그래서 이렇게 별을 받아 달구지에
실려오다 떨어진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덜컥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추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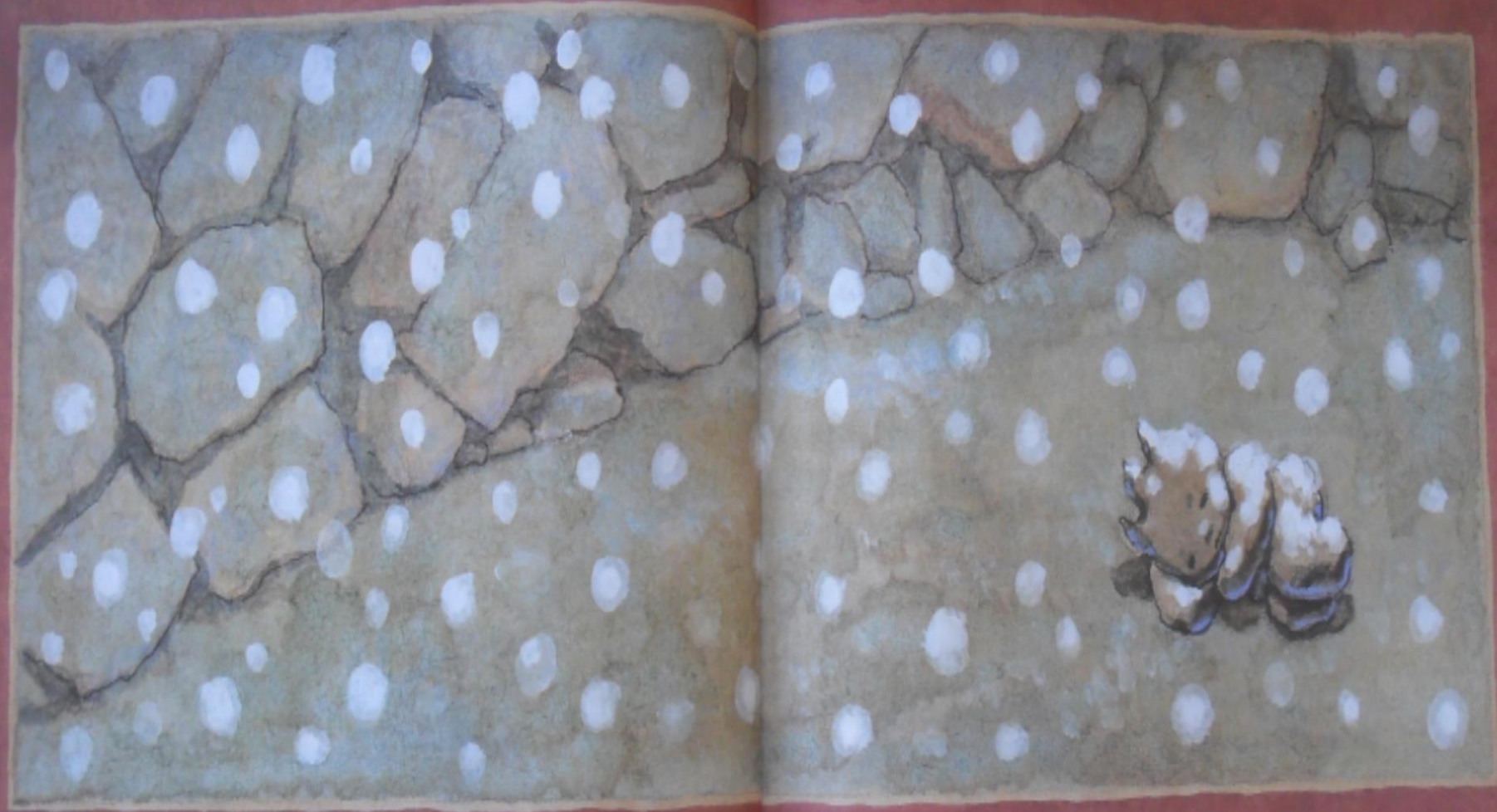
그때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덜컥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추었어요.



"아니, 이건 우리 밭 흙이잖아?"
어제 싣고 오다가 떨어뜨린 모양이군.
도로 밭에다 갖다 놓아야지."

소달구지 아저씨는 흙덩이를 소중하게
주워 담았어요.





소달구지가 흙덩이를 싣고 가버리자

강아지똥 혼자 남았어요!

소달구지가 흙덩이를 싣고 가 버리자 강아지똥 혼자 남았어요.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 쓸 수 없을 텐데....."

강아지똥은 쓸쓸하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강아지똥은 쓸쓸하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미닭 한 마리가 병아리 열두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병아리 열두 마리를 데리고 지나다가
 강아지똥을 들어다봤어요.
 "암만 봐도 먹을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두 찌꺼기뿐이야."
 어미닭이 똥을 철레철레 흔들며 그냥 가 버렸어요.
 어미닭이 고개를 철레철레 흔들며
 그냥 가버렸어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돌아났어요.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돌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 을 쬌어 주시기 때문이야."

"그래애.... 그렇구나...."

강아지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 숨이 나왔어요.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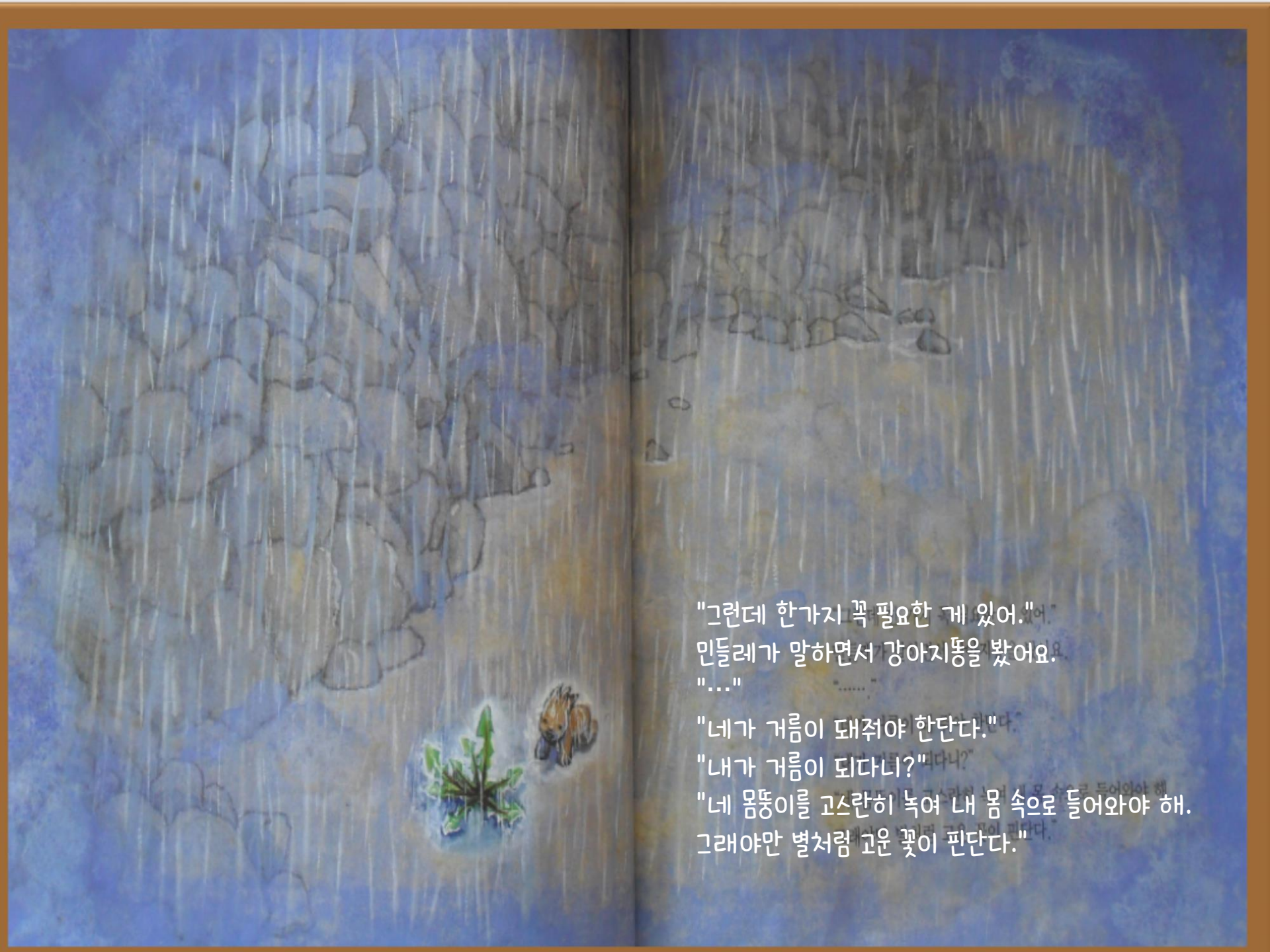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 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쬌어 주시기 때문이야."

"그래애..... 그렇구나....."

강아지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똥을 봤어요.
"..."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다니?

"네 똥똥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 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똥은 얼마나 기뻐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겨안아 버렸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똥은 온 몸이 비에 맞아 잘디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 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